에듀윌 한국사 대표강사 : 신형철

1.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막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 원 간섭 시기, 기존의 관제가 격하되어 <u>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u>되었고, 6부는 4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오답확인

- ①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고려의 왕이 겸임하였다.
- ④ 대막리지는 고구려 말기의 집정 대신이었다.

2.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다.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 \bigcirc \bot \rightarrow \Box \rightarrow \Box
- 4 \rightleftarrows \rightarrow \sqsubset \rightarrow \urcorner \rightarrow \sqsubset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underline{\mathbf{c}}$: 1904년 제 1차 한일협약(고문정치) $\rightarrow \underline{\mathbf{c}}$: 1905년 을사늑약(제 2차 한일협약) $\rightarrow \underline{\mathbf{c}}$: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사건 이후 고종은 강제 퇴위) $\rightarrow \mathbf{c}$: (순종 즉위 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3.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 다.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 리.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해설: 금관가야의 멸망(532),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은 <u>법흥왕</u> 때의 역사적 사실이다. ㄷ. 법흥왕 22년(535) '<u>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u>'이라는 왕호를 칭하면서 "국왕의 초월자적 위상"을 과시하였다. ㄹ. <u>울진봉평신라비는 524년(법흥왕 11)에 세워진 비석</u>이며, 신라 6부의 명칭과 당시 율령이 반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확인

ㄱ - 지증왕, ㄴ - 진흥왕, ㅁ - 선덕여왕에 대한 서술이다.

4. 고구려의 대중국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 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 냈다.
-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 고구려의 영양왕은 598년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하여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오답확인

- ② 천리장성(631 647)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축조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격퇴하였다.(살수대첩, 612)
- ④ 양만춘은 당 태종의 군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645)

5.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균정 하였다.

-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③ 이, 호, 예, 병, 형, 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하였다.

정답: ②

해설: 밑줄 친 '이것'은 경국대전이다. 6전 체제로 정리된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 반포되었다.(반포 - 성종 12, 1481)

② - <u>조준</u>(충목왕 2, 1346 ~태종 5, 1405)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며 <u>태종 때 사망</u>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 편찬과는 관련이 없다.

6.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 ③ 일본인 거주 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정답: ②

해설: ② -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외의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는 내용 "만" 언급되었을 뿐, 인천과 부산에 일본 공관을 둔다는 내용은 없다.

7.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 L.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① 7, ≥
- ② L, ⊏
- ③ ᄀ, ㄴ, ⊏
- ④ ¬, ⊏, ≥

정답: ①

해설: 영조는 ㄱ. - 형벌 제도를 개선하여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다. 또한 ㄹ. - 임노동자의 고용하여 청계천을 준설하였고, 그 결과 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오답확인

- L 정조는 서얼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하였고,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C.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한 것은 맞지만(균역법의 시행으로 상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킨 것은 아니다.

8.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 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 ② 현종 대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 흥왕사에 보관하였다.
-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 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 ④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향 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정답: ④

해설: ④ - 향도는 불교가 수용된 삼국시대부터 조직되었고, 매향(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행위)은 미륵신앙이 반영된 활동이었다.

오답확인

- ①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사원의 남설(濫設 많이 설립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 ② <u>초조대장경은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판각되지 않았으며</u>, 부인사에 보관되었다가 몽골침략 시기에 소실되었다. 한편 <u>흥왕사는 문종 때 건립되었기 때문에 현종 때는 존재하지 않았</u>다.
- ③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한 인물은 의천이다.

9.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 ② 사간원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기관
- ③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 ④ 의금부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정답: ①

해설: 오답확인 ① - 예문관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관청이다. 한편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 기관은 홍문관이다.

10.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정답: ④

해설: ④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u>1962년</u>부터 실시되었다. 오답확인

- ① 1949년 12월 19일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1952년 5월 24일 한미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었다.
- ③ 1996년 12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11.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 ② 북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정답: ①

해설: ① - 조선 초기의 외교관계는 (화이론에 바탕을 둔) 사대교린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명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실리외교였으 며, 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이었다. 한편 ③ - 여진, 일본 등과는 교린정책을 바탕으로 강경책과 온건 정책을 병행하였다.

④ -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특히, 류큐에는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12. <보기>의 밑줄 친 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①을(를) 따진다.[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떨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정답: ④

해설: 밑줄 친 ○은 골품제이다. ④ - 골품제는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 이 결정되었다.(예 - 6두품은 17관등 중 6두품 아찬이 관등 상한선)

오답확인

- ① 골품제는 법흥왕 때 정비되었다.
- ② 국학의 설립과 골품제의 폐지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 ③ 진골은 5관등 대아찬 이상의 관등에 올라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대아찬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다.

13.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 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해설: 보기의 국가는 '부여'이다. ④ - 부여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오답확인

① 삼한에서는 소와 말을 순장(殉葬)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변진(변한)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여 죽은 자가 승천(昇天)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②④

14.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 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 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헌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총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 심을 표현했다.

정답: ③

해설: 오답확인 ③ - 최충헌이 집권한 것은 1196년이다. 따라서 김보당의 난(1173)과 조위총의 난(1174)은 최충헌 집권 "이전"의 사실이다.

15.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 다.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bigcirc
- 2 L
- ③ □
- ④ ⊒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C.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발언
- L.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 합의
- ¬. 1947년 7월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실질적 결렬
- 리.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결의

16.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 이회영 등 6형제는 집안 재산을 정리하여 서간도로 이주하였다. 특히 이회영은 서 간도에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오답확인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은 연해주에 설립된 독립운동조직이다.
- ③ 북간도에서는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독립의군부는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복벽주의), 전국적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17.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 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정답: ④

해설: 오답확인 ④ - 비변사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18.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 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 군의 철수를 이끌어 냈다.
-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 시켰다.
- □.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 a.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 $\textcircled{1} \ \, \exists \ \, \rightarrow \ \, \vdash \ \, \rightarrow \ \, \vdash \ \, \rightarrow \ \, \vdash \ \,$

- ④ L → 2 → ¬ → □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underline{\ }$: 노비안검법(광종) \rightarrow $\underline{\ }$: 시정전시과(경종) \rightarrow $\underline{\ }$: 거란의 1차 침입(성종) \rightarrow $\underline{\ }$: 인종 때 (송의 사신으로 온) 서긍이 저술한 『고려도경』

19.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1.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신간회(1927 - 1931)의 강령이다.

오답확인

② - 105인 사건(1911)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이다.

20.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대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정답: ③

해설: ③ - 과전법에서는 전, 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오답확인

- ① <u>태종 17년(1417)</u> <u>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옮겨 지급한 적이 있으</u>며,
- 세종 13년(1431) 다시 경기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 ②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 ④ 과전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